

2) 교회 설립

1905년 10월 15일에 설립된 여수 장천교회는 순천노회의 모교회다. 이 지역 유지 조일환·이기홍·박경주 세 명이 일제의 압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위해 만주로 이민길에 올랐다. 그러나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할 위협에 처해 피신처를 찾던 중 미국인이 경영하는 세브란스병원으로 들어가면 체포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피신하여 위험을 모면하였다.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머리를 삭발하고 고향에 돌아와 예수를 믿었다. 특히 서울에서 소개받은 선교사를 목포로 찾아가 더 깊은 진리를 전수받아 조일환의 집에서 조의환·지재한·박경주·이기홍·박중호 등이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설립하였다. 1912년 3월 조의환과 이기홍은 초대 장로가 되었다.

한편 지원근의 전도를 받은 조상학은 무만교회의 설립자 김일현과 정태인을 전도하였다. 김일현은 무만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상학의 옛 친구였는데 그가 토지소송문제로 광주에 체류하게 되자 조상학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권한 결과, 확신을 갖고 무만동으로 돌아갔는데 외래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정태인이 그의 기독교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심한 질책까지 하였다. 김일현은 광주에 있는 조상학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집에 머무르면서 정태인을 전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에 거절할 경우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 보류하겠다고 하자 심각성을 느낀 조상학은 즉시 무만동으로 내려가 정태인을 전도하였다. 그뒤 김일현과 정태인은 마을에 교회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보성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근을 찾아가 예배 인도를 부탁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순천지역의 최초의 교회였다.

현 순천중앙교회의 전신인 '순천읍교회'는 1906년 율촌의 조일환·조의환·지재한·박경주·이기홍·박중호 등이 전도 강연과 개인 전도로 최정익이 믿고 조상학의 전도로 최사집이 믿음으로 서문 내 강시섭의 사저에서 회집하다가 양생재를 임시 예배 처소로, 서문 밖에 기지 40여 평과 초가 10여 평을 매수하여 설립하였다. 특히 무만동교회 조사 이행수와 매서인 박응삼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4~5년 뒤에는 30여 명이 모였다.

그뒤 이 순천읍교회를 중심으로 고흥 신흥리교회, 여천 우학리교회, 순천 용당교회(1908. 8. 8.), 고흥 금산신평교회, 순천 이미교회, 광양읍교회(1908. 9. 15.), 구례읍교회(1908. 8. 2.), 고흥 옥하리교회, 광양 백암리교회, 광양 삼거리교회(1909. 10.), 순천 대치리교회(1909. 8. 15.), 순천 구상리교회(1909. 가을) 등이 계속 설립되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후 일제는 무단정치를 실시, 한국교회에 대하여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와 황민화 교육을 위해 창씨개명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한민족 말살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에 대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식민통치를 거부하도록 하였지만, 마침내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한국기독교를 탄압, 굴복시키려 하였다.